



박종호 인천 남동구청장, 1주년 ‘블랙리스트’ 보기

남동구 잇따른 이강호 기념식수 훼손 못난 행정 비판한 주민들 공무원 고발



박종호 인천 남동구청장 /남동구

민선8기 박종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1주년을 돌아보면 블랙리스트로 분석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구청장으로서 한마디 사과도 없는 태도는 불통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은 첫 번째 사건은 만수산무장애나눔길 준공을 기념하기 위한 이강호 전 구청장의 기념식수 뽑기부터다.

남동구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만행은 공무원의 아첨에 발로인지 기념식수를 제거해 버린 일이다. 고발 등 논란이 일자 원상회복은 했지만, 속내를 알 수가 없는 일탈은 수장 박종호 청장의 공식적 사과는 당연했다. 그날의 침묵을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민선 7기 이강호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남동구를 전국에서 손꼽히는 녹색복지도시로 탈바꿈을 위해 만수산무장애나눔길을 만들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안전하게 정상까지 등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단이 없는 등산로이다.

박종호 구청장이 지난해 취임한 뒤 전임 구청장 치적이 보이는 것이 싫은 것인지, 기념식수가 하나둘씩 사라지자 못난 행정이라며 혀를 차던 주민은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았던 사건은 구청 내부의 창고에서도 기념식수를 찾았다. 또 구청 앞 공원에 존치한 이강호 기념식수의 문구를 바꾼 소행은 대리인 공무원 구청장인데 누구의 지시인지 구민 앞에 공식적인 박종호 해명이 필요했다. 취임사에서 현장소통을 강조했던 박종호 구청장이다.

취임 초기 시행했던 조직 개편은 소통담당관실을 없앴다는 사실이다. 소통담당관실은 그동안 주민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남동구와 남동구민 사이의 징검다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생활밀착형 복지환경 구축을 약속한 신임 구청장이 생활

밀착형 주민소통 부서를 없앤 이유는 무엇일까?

소통담당관실도 전임 구청장의 흔적이었다. 주민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찾는 데 앞장섰던 김용운 소통담당관은 전임 구청장 시절 발탁된 인물이었다. 소통담당관 부서가 조직 개편되자 공중분해가 된 부서를 두고 그 심정은 어떠할지 가늠이 된다. 사실상 쫓겨난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평가다. 소통담당관실은 전임 구청장의 손때가 묻었기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정적 지우기로 비판을 받은 박종호 구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초한 행보로서 어떤 부서가 사라져야 하는지는 주장인 당사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진짜로 사라져야 할 부서는 공영개발 부서였다. 이유는 선명하다. 남촌일반산단을 이 부서에서 기획했고 사업비 출자금인 20억 원이 넘는 혈세를 공중분해를 시킨 실패를 안겨주었다. 책임을 물어야 했다. 올해 연말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가 지역 내 파다하다.

한 전직 공무원은 공영개발과 부서는 사업별 다른 부서에서 팀별로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주민과 소통하는 소통담당관 부서를 없애면서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부서는 그냥 놓아두었다는 것은 소통보다 다른 공공이를

위해 존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위 같은 조직 개편을 두고 박종호 호 1년 사이 일어난 일이다. 또 공약 1호 사업은 타당성 조사의 용역비 4억 원을 억지로 만든 사례와 약 1000억 단위 사업비도 없는데 만수전 생태하천 반쪽짜리 복원사업을 1주년 성과처럼 떠들고 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도 없는 실체를 가지고 마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럼 용역 타당성 조사는 이미 짜고 치는 입맛대로 나오는 실체인지 합리적 의심이다. 박종호 하천복원 결과물은 없을뿐더러 예산 마련도 막연하다.

한편 “지난 1년이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는 시간이어야 한다”면서 “남동을 새롭게 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서 먼저 뛰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한다. 그럴싸한 미사여구로 보인다. 주민들의 일침은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전 청장의 사업부터 마무리를 하라고 한다.

남동구의회 A 의원은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며 혀를 찼다. 지난 1년이 남동구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기보다 전임 구청장 흔적을 지우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가용예산은 없고 내년 세수는 100억 정도 줄어든다는 것, 재정건전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훈 논설위원 dpffhgl111@naver.com

영국 본교, 아시아 Harrow 학교 개교 권한 부여

지역 업체 참여율 향상 논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국 Harrow School 본교는 아시아에서 Harrow 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 권한을 AISL에 부여한 사실이 2018년도부터 확인되고 있다.

현재 AISL은 아시아에 중국, 일본, 태국, 홍콩에서 총 12개의 Harrow 교육기관을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 11개의 Harrow 교육기관은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

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Harrow 국제학교 인천 개교와 관련하여, 아시아의 다른 Harrow 비영리 교육기관과 같이 비영리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도 있다. IFEZ는 현행법상 ‘비영리 외국학교법인(본교)’만이 외국 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경

제자유구역청은 국제학교명을 사용할 수 있는 아시아권 라이선스를 양도받은 외국 영리기업이 설립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돼 법령위반이 되고 있는데도 추진하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12일 국제학교 공모사업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MOU를 체결한 AISL은 영국 해로우 스쿨 아시아 학교 설립 권한 라이선스를 가진 홍콩 영리기업(주식회사)이다. 따라서 영국 해로우 스쿨 본교(비영리 외국학교법인)가 아니

어서 이 양해각서는 현행법에 위반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AISL은 IFEZ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천경제청은 이를 알고도 해당법을 무시하면서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다른 “법적 시각은 영국 측 본교에서 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

인천도시공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동암 iH 사장,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 문순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장, 김석규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iH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및 공사 발주계획에 대하여 발표한 이후 참석자들의 건의 사항 등을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iH에서 발주하는 민간참여 건설사업의 인천 지역업체 참여



인천도시공사는 12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iH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iH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단’운영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건설 업체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계기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iH 조동암 사장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iH는 인천시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시공, 자재,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